

한국기업의 베트남지역 해외직접투자 패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Pattern of Korean Enterprises in Vietnam

김희준(Hee-Jun Kim)

경북외국어대학교 관광스포츠경영학부 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베트남의 투자환경 | 참고문헌 |
| III.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실태 | Abstract |
| IV.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의 문제점 및 시사점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investment environment of Vietnam and analyze the actual investment state of Korean enterprises in Vietnam and seek for the points at issue.

In general,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Vietnam shows both a positive side and negative side. However Vietnamese market is a attractive one as ever for direct investment of Korean enterprises considering their constant economy growth, investment increase of foreign company for Vietnam, China risk. And the point at issue in investment of Korean Enterprises is as follows. That is, inclining to manufacturing, preference of independence investment, small-sized investment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reference of greenfield investment, restricted purpose of investment, insufficiency of infrastructure for logistics, electric power, legal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mainly that the investment of Korean enterprise into Vietnam needs a switchover of the third service trade-tertiary industry, collaboration with Vietnamese enterprise through joint venture investment, a large-scale investment for Vietnam domestic market and neighboring countries' market, practical use of M&A with existing Vietnamese enterprise and diverse purpose for investment.

Key Words : Investment Environment, Actual Investment State, Vietnamese Market

I. 서론

해외 직접투자는 기업이 국제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필요한 하나의 형태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시장에 직접투자를 함으로써 수출에서 오는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현지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려고 한다. 한국기업도 그동안 꾸준히 해외시장에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기지를 옮겨 세계화 전략에 동참하면서 생존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한 시도는 1980년도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생산기지의 이동이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유사성이 있는 중국시장에 지속적인 투자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2007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다.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중국의 투자 환경이 인건비 위주의 비용우위가 점차 사라지고 경제성장에 걸맞는 외자기업에 대한 투자법의 정비와 본국의 경제 수준에 맞는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현재 베트남 경제는 1인당 GDP가 1,024 달러로 최빈국에서 탈출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¹⁾ 2009년 경제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제성장 목표를 2008년과 같은 7%로 정하였으며 전체 GDP는 1,030억 달러, 1인당 GDP는 1,180달러로 정하였다.²⁾ 또한 2008년 대 베트남의 외국기업의 투자액이 602억 달러로 2006년 78억 달러, 2007년 187억 달러와 비교하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베트남 경제의 잠재력과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의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향후 베트남은 전 세계 각국의 베트남 투자확대와 내수시장의 확대에 의해 2015년까지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교역량은 1992년 양국이 수교한 후 본격화 되었으며 2002년도에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2007년에는 57억 달러를 기록하고 2008년에는 78억 달러가 되었다.³⁾ 그리고 한국기업의 베트남 직접투자는 2006년 5억 8천만 달러, 2007년 13억 달러, 2008년 13억 3천만 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⁴⁾ 최근에 베트남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강력한 긴축정책, 외환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투자에 대한 부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적격지라

1) 베트남 통계청, 2009

2) 베트남 계획투자부, 2009

3)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국가별 수출입, 2009 (<http://www.kita.net>)

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9

할 수 있고, 투자비용면에서도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처라 할 수 있겠다. 향후 인도차이나 제 국가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둔다면 이 지역의 중심인 베트남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베트남의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환경을 알아보고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투자에서 오는 문제점과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베트남의 투자환경

1. 전반적인 투자환경

우선 임가공 위주의 저렴한 노동비를 겨냥한 외국기업들의 대 베트남 투자환경은 긍정적이지 않다. 인건비와 공단 임대료 등 투자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비용의 증가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해외기업들의 수익 채산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첨단 기술에 대한 선호가 이들 기업의 현지 투자를 어렵게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지방 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자세도 변하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강력한 긴축정책도 외국기업의 현지 투자를 어렵게 한다.⁵⁾ 은행들에 유동성 발생, 신규 대출중지, 기존 대출회수 등의 상황으로 현지에서 투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의 현지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강력한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어 유동성이 부족하고 내수 시장에 투기성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도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 및 기계 플랜트, 고급 소비재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가 적자이며, 이는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상반기 외국인 투자액은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6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베트남 경제의 둔화를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망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08년 상반기에 총 478건, 309억 4천만 달러의 급격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금액을 보아도 알 수 있다.⁶⁾ 외국기업들 이러한 직접투자는 현재의 베트남

5) 인플레이션 따른 베트남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으로 2008년 3차레에 걸쳐 14%정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

6)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임. 베트남 계획투자부, 2008

경제를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여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차이나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은 중국의 대체 투자지로 베트남을 선호할 수 있다. 실제 베트남에서의 투자비용은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비록 최근에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평균 7% 이상의 성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의 유망한 시장으로 봐야할 것이다.⁷⁾

2. 투자환경의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

베트남의 투자환경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유리한 점으로는 첫째, 외국기업들의 무역업과 도소매업을 개방하고 있는 점이다. 베트남이 2007년 WTO에 가입한 후 WTO의 서비스시장 개방 요구로 무역업과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를 허가하고 있다. 단지 베트남 현지 기업과 합작 형태로 설립을 허가했으나 이 부분도 2009년부터는 단독투자도 가능하다. 유통업의 경우도 2009년부터 100% 단독투자가 가능하며, 도매, 소매, 구매·판매 에이전트 활동을 할 수 있고, 유통 금지 품목을 제외한 베트남에서 생산되었거나 베트남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해 도매, 소매, 구매·판매 에이전트의 권한을 가진다. 둘째, 투자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이 확보되었다. 베트남은 위해 내외국인의 차별을 없애는 통합 투자법과 기업법을 발효하여 투자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관세인하 효과이다. 베트남에서 생산을 한 제품이 ASEAN 역내 국가로 수출될 경우 ASEAN 회원에게 부과하는 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현재 발효 중인 ASEAN과 한국의 FTA, ASEAN과 중국의 FTA가 성사되면 베트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에 수출할 경우 관세에 대한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 3% 할당제의 폐지이다. 이는 투자 초기에 발생하는 자국 근로자의 파견 비율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

불리한 점으로는 첫째,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이다. 개발도상국의 공통된 부분인 투자에 대한 제도와 법령이 미비하고, 법 집행의 일관성이 미흡하다. 국제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하여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투자 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합작과 같은 투자

7) 2008년 6월에 PwC(Price water house Coopers)가 유망 시장 20개국의 투자 여건을 조사, 발표한 EM20 Index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20개국 중 5위를 기록해 지난 2007년 7월 결과에 비해 떨어졌지만 여전히 유망한 제조업 투자지로 선정되었다. 2007년에는 베트남이 낮은 비용에 따른 높은 생산 경쟁력과 가장 높은 수익 가능성, 국제 경제 체제로의 편입에 따른 안정성, 8% 대의 고도성장, 8,600만에 이르는 인구로 내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요인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 형태에서는 파트너 선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에 필요한 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에서는 경제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지가가 오르고 건물 임차료가 높게 형성되며, 노동 인건비가 상승하는 일반적 현상이 나타난다. 베트남의 경우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던 정부의 태도도 특별히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산업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따라서 운송 수단, 운송비용이 증가할 밖에 없다. 전력 부족은 생산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자체 발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든다. 베트남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으나 국가재원의 부족으로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사용이 가능한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입사 후 재교육을 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섯째, 원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베트남의 산업은 주로 노동집약적인 가공, 조립에 집중되어 있어 완제품을 위한 부품 공급이 용이하지 못하다. 따라서 현지 투자 시 부품 협력 업체와 동반 진출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여섯째, 내수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구매력이 낮고 소비 계층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다. 최상류층과 일반 계층으로만 나누어져 있고 일반 계층은 저렴한 제품 가격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이 된다.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설립한 기업은 베트남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판매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⁸⁾

Ⅲ.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실태

1. 대 베트남 투자의 배경

해외 직접투자는 단순 수출에서 국제 계약 형태를 지나 좀 더 심화되는 과정이다. 주요 국가에 대해 직접투자를 하는 배경에는 기업이 기술, 브랜드, 마케팅 등에 경쟁우위를 갖고 있을 때 이를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때 보다 큰 이익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시작된다. 비록 현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가 취약한 측면도 있지만 경쟁우위가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거래비용을 낮추는

8)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 베트남. 2009 (<http://www.kotra.or.kr>)

이점을 찾을 수 있다. 현지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것이 그 시장의 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거래비용이 감소시킬 수 있다. 해외 직접투자는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에 무역장벽과 환율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WTO체제 하에서 표면적으로는 무역장벽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입할당제, 수입과징금, 외환할당 등의 비관세장벽 강화로 인해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또 다른 배경으로서 국제 제품수명주기론을 들 수 있다. 도입기에는 자국에서 생산하여 내수시장에서 판매 활동을 전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시장을 발굴해야 되고 생산기지도 해외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해외투자 유형으로는 인건비 상승으로 원가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지향형 투자, 해외시장 개척과 수요창출을 위한 시장확보형 투자, 기업의 생산이나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 기술확보형 투자, 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원유, 광물, 산림, 천연자원, 수산업 등의 자원을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자원지향형 투자로 나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해외 직접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이론적 근거가 있지만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직접투자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서 1989년까지 지속적인 무역수지의 흑자를 이루었다. 그리고 1980년 후반부터 인건비가 상승함으로써 전체 생산품의 비용이 증가하였고 시장개방 압력을 받게 되어 제3국으로의 생산기지를 이동하여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그 첫 번째 국가로 인식되어 많은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 직접투자라는 방식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 후 중국 시장의 노동 인건비 상승과 외자기업에 대한 투자법이 강화되고 중국 정부의 첨단 기술에 대한 현지 투자를 선호하는 등 투자환경의 변화하여 중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가 필요하였고 그 대안으로 베트남이라는 시장이 주목받게 된 것이라 보인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에 수교한 이후로 양국의 교역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연 평균 19.7%, 2006년 14.5%, 2007년 46.7%로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전년 대비 35.5% 증가하는 7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대 베트남의 교역량은 연간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⁹⁾ 이와 같은 교역량의 증가는 양국의 직접투자 부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베트남의 기록적인 무역적자,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들이 베트남 정부로 하여금 국가경제에 대한 긴축정책을 강화하게 하고 수입제한 조치나 비관세장벽을 확대할 가능성으로 영향을 준다면,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현지 직접투자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투자를 통해 해외로 진출한 한국기업은 관세문제 극복, 현지화 전략 가능, 생산비용의 감소 등의 유리한 점도 있으나, 지리적 환경,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와 상관습의 차이, 외국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정책 등을 극복해야 한다.

9)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국가별 수출입, 2009 (<http://www.kita.net>)

외국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도 참고가 될 것이다. 베트남 계획투자부에 따르면 2008년까지 총 누적 투자는 9,803건, 1,497억 7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2008년 한해에도 1,171건, 602억 달러를 기록하여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2007년 6월에 한국과 베트남(아세안)의 FTA가 발효되었다. 이는 한국기업이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기지와 국내 시장을 겨냥한 투자 진출이 확대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최근 베트남 경제의 과열 현상과 물가급등,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불안한 요소가 있으나 저개발국가가 고속 성장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점차 경제의 안정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베트남의 경제 잠재력을 감안한다면 베트남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으로 외국기업들에게 인식될 것이다.

2. 대 베트남 투자현황

1) 연도별 투자현황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직접투자는 2008년 말 누계 기준으로 9,797건, 48억 6,762 만 달러를 투자하여, 중국, 미국, 홍콩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1980년에 2건, 2만 달러에 불과했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94년에는 투자건수 106건, 투자금액 9천만 달러를 나타냈다. 이는 1994년에 있었던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엠바고의 해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995년에 141건, 1억 8,286만 달러로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1997년까지 이어진다. 이 당시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늘어났던 원인으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가 비교적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 자본주의 체제를 경험하여 국가 간 거래에 대한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1998년에 83건, 8천만 달러, 1999년에 80건, 4천 3백만 달러, 2000년에 7천만 달러, 2001년 5천 6백만 달러로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투자건수가 1,598건으로 늘어났고 투자금액도 5억 8,711만 달러가 되었다.¹⁰⁾ 2006년도 한국기업의 투자 규모는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투자를 시작한 이래 2006년까지 최대 규모로써 그 동안 가장 투자 규모가 컸던 1995년, 1997년, 2002년에 비해 약 3배의 규모이며 2005년에 비해서는 약 2배 규모로 늘어났다. 2007년에도 투자건수 2,227건, 투자금액 13억 727만 달러로 2006

10) 반면에 베트남 계획투자국의 자료는 상이하다. 2006년 투자건수는 207건, 투자금액은 26억 8천만 달러로 기록하고 있다. 2007년도 투자건수 406건, 투자금액은 44억 6천만 달러이다. 이러한 투자통계의 차이는 한국 내 투자미신고, 현물 및 기술투자 등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통계를 참고함.

년 대비 거의 2배로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등 투자가 장기간 실행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8년에는 투자건수 2,254건, 투자금액 13억 3,068만 달러로 2007년 대비하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기업들의 대 베트남 투자의 둔화 현상은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투자 시기조절 및 가성 투자의 감소 등 투자의 질적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미 달러 기준의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베트남 경제 여건 악화 및 베트남 동·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투자를 잠시 미루고 상황을 관망하는 한국 투자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¹¹⁾

〈표-1〉 한국기업의 연도별 대 베트남 투자 현황

(단위 : 건,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80	2	20	2	20
1992	23	101,156	16	16,775
1993	62	152,856	40	38,017
1994	73	178,814	106	90,578
1995	74	216,234	141	182,864
1996	90	219,250	170	119,363
1997	72	180,002	160	140,142
1998	42	107,537	83	80,745
1999	39	63,785	80	43,482
2000	68	98,474	140	70,899
2001	104	96,876	248	56,827
2002	185	388,162	451	153,465
2003	204	723,310	523	158,814
2004	255	357,254	609	177,222
2005	376	386,822	949	313,335
2006	572	1,793,470	1,598	587,113
2007	828	2,684,654	2,227	1,307,271
2008	806	1,993,465	2,254	1,330,682
누계	3,875	9,742,139	9,797	4,867,61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9

11)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 베트남. 2009 (<http://www.kotra.or.kr>)

2) 산업별 투자현황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는 2006년 투자금액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49%인 2억 8,924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광업 1억 8,881만 달러, 건설업 3천 900만 달러, 숙박 및 음식점업 2천 579만 달러, 부동산업 및 임대업 1천758만 달러,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천 524만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건수 면에서도 제조업이 1,224건으로 전체 대비 76.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건설업 69건, 광업 66건, 부동산업 및 임대업 63건, 숙박 및 음식점업 32건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도 제조업이 6억 2,254만 달러로 산업별 투자 업종에 1위로 전체투자 대비 4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광업 2억 5,062만 달러, 부동산업 및 임대업 2억 1,151만 달러, 숙박 및 음식점업 7천 830만 달러, 건설업 7천 503만 달러, 1천758만 달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천 585만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2006년에 비해 부동산업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특히 부동산 관련 산업은 2006년 대비 1,000%이상 증가하는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2007년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금액 기준으로 1-14위까지 모두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이며, 30대 투자 프로젝트 중 21개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 보인다. 투자건수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118건, 건설업 151건으로 2006년 대비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제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투자가 일어났다. 전반적으로 산업별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에 투자건수는 4건에서 6건으로 늘어났으나 투자금액은 837만 달러에서 8천 17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2007년 대비 증가세가 줄어들었다.

제조업종 중에서는 2006년 기준으로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1차금속, 식료품, 전기장비, 가죽 가발 및 신발의 순으로 투자가 일어났다. 2007년에는 1차금속, 전기장비,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섬유제품의 순으로 투자되었고 2008년에는 음료, 전기장비, 1차금속,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섬유제품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류, 모피 제품에서 전기장비 등 내수시장 진출형 투자비중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2〉 한국기업의 산업별 대 베트남 투자 현황

(단위 : 건, US\$ 천)

업종	2006		2007		200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림, 임업 및 어업	12	454	16	3,006	30	3,876
광업	66	188,819	81	250,623	77	208,565
제조업	1,224	289,241	1,568	622,540	1,564	653,67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	0	3	127	0	0
하수, 폐기물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	0	4	4,000	3	35
건설업	69	39,007	151	75,031	176	118,142
도매 및 소매업	27	5,669	39	10,155	72	12,440
운수업	9	739	5	754	25	2,997
숙박 및 음식점업	32	25,790	54	78,304	41	25,68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	1,396	23	1,186	19	3,502
금융 및 보험업	0	0	4	8,375	6	81,701
부동산업 및 임대업	63	17,584	118	211,511	131	212,39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	752	67	2,864	78	3,94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	1,006	13	421	7	17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	150	0	0	8	1,261
교육서비스업	17	343	23	1,647	4	4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549	9	114	6	1,53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	15,246	33	35,857	4	14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	369	16	757	3	170
누계	1,598	587,113	2,227	1,307,271	2,254	1,330,68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9

〈표-3〉 한국기업의 제조업종별 대 베트남 투자 현황

(단위 : 건, US\$ 천)

제조업종	2006		2007		200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식료품	31	30,520	31	24,636	24	33,520
음료	1	70	0	0	395	131,346
섬유제품 : 의복제외	142	18,145	208	52,049	213	68,54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326	62,614	337	62,374	227	52,600
가죽, 가발 및 신발	108	22,678	133	25,610	116	42,515
목재 및 나무제품 : 가구제외	11	388	31	3,866	27	4,2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0	2,768	24	7,942	21	6,04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	572	10	561	7	33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0	0	1	409	11	7,57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의약품 제외	120	13,722	89	37,426	101	35,99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7	2,600	6	2,575	10	2,47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77	7,687	131	56,542	80	69,493
비금속광물제품	30	2,864	33	11,032	40	20,305
1차금속	33	53,503	51	153,479	97	105,427
금속가공제품 : 기계 및 가구제외	36	4,728	61	17,114	86	16,37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44	14,193	63	11,815	116	28,9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8	1,720	15	1,958	15	1,721
전기장비	33	26,496	65	111,491	72	115,907
기타기계 및 장비	49	5,192	66	7,636	56	8,248
자동차 및 트레일러	45	5,801	97	18,888	119	15,207
기타 운송장비	2	1,577	9	6,329	15	4,893
가구	42	5,210	23	1,489	26	1,548
기타 제품	50	6,192	84	7,320	85	11,790
누계	1,224	289,241	1,568	622,540	1,564	653,67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9

3) 기업규모별 투자현황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기업규모별 투자 상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 투자건수로는 중소기업이 월등히 많다. 반면에 투자금액은 대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2006년과 같은 상황이지만 투자금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다. 반면에 투자건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약 6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은 대기업, 중소기업 둘 다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이 2006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전반적으로 투자금액의 증가가 둔화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현황은 2007년과 비슷하다.

〈표-4〉 한국기업의 기업규모별 대 베트남 투자 현황

(단위 : 건, US\$ 천)

주 투자자 규모	2006		2007		200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기업	136	349,328	235	765,683	301	754,312
중소기업	987	201,320	1,376	471,866	1,470	527,317
개인기업	147	11,441	181	18,067	194	15,705
개인	328	25,025	435	51,655	289	33,347
누계	1,598	587,113	2,227	1,307,271	2,254	1,330,68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9

4) 투자형태별 투자현황

해외 직접투자의 투자형태에 따라 크게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나눌 수 있다. 공동투자는 한국기업들이 공동으로 현지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소유지분이 100%가 되면 단독투자로 분류하게 되며 나머지는 합작투자로 볼 수 있다. 2006년에는 합작투자 형태가 투자금액이 3억 166만 달러로 단독투자 2억 1,009만 달러와 공동투자 7천만 536만 달러보다 많았고, 투자건수는 단독 및 공동투자가 1,261건으로 합작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은 투자건수나 투자금액 모두가 단독 및 공동투자가 합작투자보다 많았다. 전체 투자건수 2,227건 중 78%가 단독 및 공동투자이고 합작투자는 22%에 불과하다. 2008년에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단독 및 공동투자가 합작투자보다 약 2배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5〉 한국기업의 투자형태별 대 베트남 투자 현황

(단위 : 건, US\$ 천)

투자형태	2006		2007		200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단독투자	1,065	210,091	1,501	595,702	1,565	688,140
공동투자	196	75,360	234	116,786	313	186,009
합작투자	337	301,662	492	594,782	376	456,533
누계	1,598	587,113	2,227	1,307,271	2,254	1,330,68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9

5) 설립형태별 투자현황

해외 직접투자의 설립형태로 분류하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신설법인과 현지 기업을 합병 및 인수하는 M&A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기업이 의욕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고 생산시설, 제품구성, 인력 등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생산, 마케팅, 유통망, 인적자원 등을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는 점이다. M&A인 경우는 목표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고 기존의 기업으로부터 경영자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기업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대상 기업의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흡수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직접 투자는 2006년, 2007년, 2008년 모두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에서 신설법인이 월등하게 많다. 기존의 베트남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 한국기업의 설립형태별 대 베트남 투자 현황

(단위 : 건, US\$ 천)

설립형태	2006		2007		200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설법인	1,534	571,061	2,104	1,256,797	2,137	1,219,450
기존법인인수	64	16,052	123	50,473	117	111,232
누계	1,598	587,113	2,227	1,307,271	2,254	1,330,68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9

6) 투자목적별 투자현황

한국기업의 베트남 직접투자의 목적은 주로 자원개발, 저임금 활용, 현지시장 진출 및 수출촉진 등이다. 2006년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원개발이 1억 7,405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저임금 활용 1억 551만 달러, 현지시장 진출 8천 174만 달러, 수출촉진 6천 776만 달러 순이다. 2007년에는 현지시장 진출이 3억 7,143만 달러, 자원개발 3억 215만 달러, 수출촉진 2억 2,43만 달러, 저임금 활용 1억 8,079만 달러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2008년은 현지시장 진출 4억 6,069만 달러, 수출촉진 3억 1,021만 달러, 저임금 활용 2억 2,656만 달러, 자원개발 1억 7,417만 달러 순이다. 투자건수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는 2006년에는 저임금 활용이 592건, 수출촉진 467건, 다음으로 자원개발, 현지시장 진출이 각각 87건으로 투자되었다. 2007년은 저임금 활용 735건, 수출촉진 646건, 현지시장 진출 469건, 자원개발 123건 순이다. 2008년은 현지시장 진출 758건, 저임금 활용 683건, 수출촉진 583건, 자원개발 121건 투자되었다.

〈표-7〉 한국기업의 투자목적별 대 베트남 투자 현황

(단위 : 건, US\$ 천)

투자목적	2006		2007		200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자원개발	87	174,050	123	302,155	121	174,173
수출촉진	467	67,766	646	224,312	583	310,211
보호무역타개	31	3,857	18	3,060	12	1,005
저임금활용	592	105,515	735	180,797	683	226,566
원자재확보	20	1,544	4	275	0	0
선진기술도입	5	368	4	213	6	845
현지시장진출	87	81,744	469	371,435	758	460,694
제3국진출	3	140	21	20,549	51	21,534
기타	306	152,130	207	204,475	40	135,654
누계	1,598	587,113	2,227	1,307,271	2,254	1,330,68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9

IV.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의 문제점 및 시사점

1. 문제점

한국기업의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것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많다는 것과 소규모의 중소기업의 투자,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투자 그 자체에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향후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에 대한 투자에도 앞에서 살펴보았던 실태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겠다.

첫째,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이다. 2007년 이후 부동산 관련 산업의 투자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06년부터 3년간 평균 48.49%가 제조업에 투자하고 있다. 투자건수도 70%가 넘는다.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1차금속, 음료 등의 저렴한 인건비를 위주로 하는 제조업에 투자하여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베트남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인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한국으로 역수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저렴한 투자비용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 위주의 투자는 자칫 베트남의 임금 및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투자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한국으로 역수입될 경우에는 국내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으며 제3국으로 재수출 될 경우에도 주요 시장에서 국내기업과 부딪히게 될 것이다.

둘째,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제3국 수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가 대부분이며 합작보다는 단독투자 형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단독투자는 기업경영을 합작투자에 비해 일관성있게 통제하고, 기술의 유출이나 기업 비밀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이질적인 문화적 환경에 취약하고 현지국의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내수 시장 개척 등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영효율의 저하를 불러올 수도 있다. 한국기업들은 100% 단독투자를 선호하는데, 이는 합작일 경우 업종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 제조업의 경우 100% 단독투자가 여러모로 편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중소기업에 의한 소규모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투

자금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기업의 투자가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으나, 투자건수 면에서는 중소기업의 투자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들에 의한 저임 노동력 활용을 위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세계화가 미흡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베트남과 같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한국보다 경제적 성장이 다소 미흡한 국가에서 생산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심리적 부담감이 적은데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대기업에 의한 투자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에는 삼성, LG, 대우, 현대 등 대기업 중심의 철강, 전자, 자동차, 중공업 및 부동산 분야의 규모가 큰 투자가 많았다.¹²⁾ 2007년 이후 철강, 서비스 및 부동산 분야의 투자요인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들의 투자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베트남 현지의 기업을 인수하기 보다는 대부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이다. 신설법인은 설립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생산, 마케팅, 유통망, 인적자원 등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M&A에서 취득할 수 있는 신속한 시장 진입, 기존 경영자원의 획득 등을 얻을 수 없으며 상이한 기업 문화, 인수 시 나타나지 않았던 해당 기업의 부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흡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의 목적은 연도에 따라 틀리지만 주로 현지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 저임금 활용, 자원개발 등을 위한 것이다. 저임금 활용 부분은 제조업 위주의 투자와 연결이 되고, 베트남 내수시장만을 겨냥하는 현지시장 진출 목적은 수요 확대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어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두고 인근 제3국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현지 투자 부분은 자원 빈국인 한국으로서는 자원 부국에 대한 현지 투자는 바람직하다. 이 부분은 현지에 이러한 목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개발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한국기업의 투자실태에서 오는 문제점 외에 베트남 현지의 사정에서 오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투자관련 행정처리 소요시간이 과다한 문제, 토지 임대비 상승으로 인한 투자용 토지 취득의 어려움, 도로 운송, 전력, 법체계 등 투자관련 인프라의 미흡, 인력 관리의 어려움 등은 한국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투자를 추진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다.

12) 이상근, 베트남 일반현황, 한국투자현황 및 통합투자법 소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2007

2. 시사점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투자가 노동집약적 제조업종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생산거점의 확보나 부품 공급을 위한 투자가 많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저임금을 활용한 생산기지의 이동은 필연적인 소산이다. 단순한 저임금의 활용은 영세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의 특징 중 중소기업의 투자건수가 많다는 것과 연결된다.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건설업 등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간 제조업 투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1차 금속, 전기장비, 음료 등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 향후 베트남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고, 기술제휴 등을 통한 자체 산업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베트남 정부도 저임금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게 되는 쪽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정책을 변화시킬 것이다. 투자를 원하는 기업도 여타 다국적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증가하면서 베트남 내수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짐으로써 지금과 같은 편익을 얻기가 힘들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특화된 서비스 업종인 3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 형태가 많다는 것인데, 이러한 형태는 현지와의 마찰이 크고 위험 분산이 적은 투자 방식이다. 선진국이 투자위험이 크고 현지화의 어려움이 따르는 단독투자보다 합작투자를 선호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기업이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것은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현지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중소기업 위주의 투자가 많아 적합한 현지 파트너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이 산업의 인프라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열악함으로 초기의 대규모 단독투자보다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현지시장에 대해 적응해 나가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험도가 높은 단독투자 방식에서 탈피하여 합작투자 형태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설법인 투자가 많다는 것은 설립이 용이한 측면이 있고 합병·인수할 기업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산업이 발전하고 기업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신설법인 설립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기존의 여러 경영 요인을 활용할 수 있는 합병·인수의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투자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은 앞에서 언급한 한국기업의 영세적인 투자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영세성은 내수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경우 판매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저임금 활용, 선진국에 대한 우회 수출기지 확보, 한국으로의 역수입 등을 위한 소규모 투자에서 과감히 벗어나 베트남 내

수시장 확보, 인도차이나 제 국가에 대한 교두보 마련 등의 적극적인 투자가 바람직하겠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목적에 있어서, 다원화된 투자동기와 투자지역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의 목적 중에서 자원개발을 위한 것이 많다.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원개발은 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의 원조가 필요하다. 특히 국제기구에 분담금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다자 간 원조보다는 직접 지원해 주는 양자 간 원조가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양자 간 원조의 비율이 일본에 비해 낮다.¹³⁾ 이는 해당 지역에서의 각인 효과가 떨어져 민간 기업이 자원을 위해 투자할 경우 현지국으로부터 호의적인 이미지를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V. 결 론

베트남은 향후 한국기업이 해외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의 중심 국가이며, 베트남을 통해 아직은 덜 개발된 인근 국가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베트남은 2008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US\$1,024로 UN의 최빈국 수준을 상회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기업이 베트남과 같은 성장 가능성이 많은 국가에 조기 진출하여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해당국가의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내수시장의 선점 및 제3국 수출을 통해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외국기업도 베트남에 2008년까지 총 1,497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지속적인 투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 만큼 베트남을 투자 적격지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의 투자환경은 전반적으로 인건비 상승, 외국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태도 변화, 경제성장의 둔화에서 오는 긴축정책 등으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예측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기업의 무역업과 도소매업의 개방, 투자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 확보, 관세인하 효과 등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13) 2008년 기준 일본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양자 간 원조(70.9%) 비율이 다자 간 원조(29.1%) 대비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경우에도 양자 간 원조(65.2%)가 다자 간 원조(34.8%) 보다 다소 많았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08년 한국의 ODA는 7억 9700만 달러였다.

1992년 한국과 수교한 이후에 2007년부터 증가되고 있는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기 위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투자가 많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서비스업 등의 3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작보다는 단독투자 형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도 초기 진출단계에서는 해당 시장에서 적합한 합작 파트너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독투자 형태로 전개되기가 쉽지만 기존의 파트너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여러 노하우 등, 합작투자에서 오는 유리한 점을 생각하여 합작으로의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위주의 소규모 투자 건수가 많다는 점은 영세성과 연관이 된다. 이러한 소규모의 투자에서 벗어나 베트남 및 인근국가의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적극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도 유리한 점은 있으나 기존의 현지 기업을 활용하는 M&A에서 오는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검토해야 한다. 투자의 목적도 현지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 저임금 활용, 자원개발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원자재 확보, 제3국으로의 진출 등 다변화된 목적도 중요하다. 또한 행정처리 소요기간, 토지임대비 상승, 인프라의 미흡, 법체계 미비 등의 어려움은 저개발 국가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만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국기업이 국내 내수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계화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지 기업 및 현지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고, 여러 문화적 환경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외국인비용¹⁴⁾이라고 일컫는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원가, 품질, 유통, 판매촉진에 대한 경쟁우위의 전략이 있어야 해외투자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해외투자는 이러한 어려운 요인을 사전에 잘 검토하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 실행단계에서부터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베트남은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다. 지리적으로도 인도차이나 제 국가의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 근면하고 인간적인 신뢰를 중시하며, 손재주가 뛰어나고 교육 프로그램에 잘 적응하는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 한국기업이 현지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 전략에 맞는 것이라 생각된다. 단지 산업별, 업종별, 투자형태별, 설립형태별, 기업규모별, 투자목적별 등에서 있어서 어떠한 형태가 앞으로의 방향이며, 어떤 부분이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는 향후에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해야 하는 과제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14) Liabilities of Foreignness.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외국기업으로서 갖는 불리함.

참 고 문 헌

- 국제협력투자국 아주협력과,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실태 조사, 2004
- 권율 외, “ASEAN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분석”, 산업자원부 용역과제, 2005
- 권율, “FTA 등 통상협상에 따른 베트남의 노동시장 현황 및 진출기업의 성공적인노무관리 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 2008
- 노승혁,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직접투자 방안에 관한 연구”, 베트남연구 제2권, pp61-96, 2001
- 박동욱, “베트남 경제 분석과 향후 전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8
- 베트남 통계청, 2009
- 베트남 투자계획투자부, 2009
- 소영일, 「경영자를 위한 베트남 경영전략 : 투자환경론」, 지구문화사, 2008
- 양두용 외,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이동기 외, 「한국기업 해외직접투자전략의 변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이상근, “베트남 일반현황, 한국투자현황 및 통합투자법 소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2007
- 장세진, 「글로벌경영」, 박영사, 2007
- 최용록, 「해외투자론-이론과 실무」, 박영사, 2000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 베트남, 2009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9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국가별 수출입, 2009
-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Statistical Yearbook of Vietnam 2006”, 2007
- USAID and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The Vietnam Provincial Competitiveness Index 2006 ; Measuring Economic Governance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2006
- <http://www.mosf.go.kr>
- <http://www.mke.go.kr>
- <http://www.kiep.go.kr>
- <http://www.kita.net>
- <http://www.koreaexim.go.kr>
- <http://www.kotra.or.kr>